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3.22

미 증시, 은행 시스템 안정 기대 속 개별 기업 요인으로 상승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옐런 재무장관 발언에 힘입어 승

•미 증시는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예금 보장 범위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장중 50% 넘게 급등해 은행 업종의 강세를 견인하며 상승. 물론, 가능성은 크지 않음에도 재무부의 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 더불어 테슬라(+7.82%)와 알파벳(+3.66%) 등이 개별 요인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유지하며 마감(다우 +0.98%, 나스닥 +1.58%, S&P500 +1.30%, 러셀2000 +1.88%)

특징 종목: 테슬라, 알파벳, 금융주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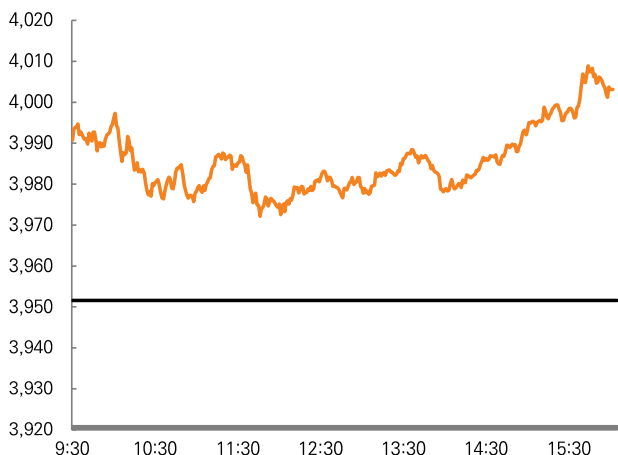
•테슬라(+7.82%)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정크등급에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1분기 중국에서 강력한 판매가 진행되었다는 소식에 상승. 포드(+4.83%)는 유럽 시장을 위한 2023년 익스플로러를 공개했는데 F-150 픽업 트럭 이후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파벳(+3.66%)은 AI 챗봇인 Bard 베타 테스트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상승. 아마존(+2.97%)은 엔비디아(+1.15%)와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인공 지능(AI) 인프라 구축 등 많은 부분에서 협업을 발표하자 상승

한국 증시 전망: FOMC에 대한 기대 심리 속 강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54%, MSCI 신흥 지수 ETF는 0.9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1.2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7%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가 옐런 재무장관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과 대량 인출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언급 등으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한편, FOMC를 앞두고 CME FedWatch에서 3월 25bp 인상 확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반영하는 가운데 성명서 내용과 파월 연준의장 발언에 주목하며 시장은 건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특히 연준은 이번 3월 회의에서 금융 안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최고 금리 하향 조정)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FOMC에 대한 기대 속 원화 강세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88.35	+0.38	상해종합	3,255.65	+0.64
KOSDAQ	802.53	+0.04	홍콩항셱	19,258.76	+1.36
DOW	32,560.60	+0.98	베트남	1,032.43	+0.91
NASDAQ	11,860.11	+1.58	유로스톡스 50	4,181.60	+1.51
S&P 500	4,002.87	+1.30	영국	7,536.22	+1.79
캐나다	19,654.92	+0.69	독일	15,195.34	+1.75
일본	26,945.67	-1.42	프랑스	7,112.91	+1.4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엘런 재무장관 발언 ② 테슬라, 알파벳

전일 한국 시장 장중에 일부 언론을 통해 미 재무부가 상황이 악화되면 모든 예금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 규제 당국이 의회 승인 없이 연방예금보험 공사의 보증 한도를 일시적으로 25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긴급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 물론, 전체 은행 예금액이 약 18조 달러에 이르는 반면 연방예금보험 공사(FDIC)의 기금액은 1,250억 달러에 불과하기에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관련 내용이 발표된 이후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등 투자 심리가 개선.

이런 가운데 엘런 미 재무장관이 은행연합회 컨퍼런스에서 최근 사태에서 무보험 예금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전액 보증했던 사례를 옹호. 특히 이번 조치가 광범위한 미국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던 조치이고 만약, 위험이 확산돼 대량 인출 사태를 보인다면 유사한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주장. 결국 일시적일 수 있을지언정 모든 예금에 대해 보증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줌. 다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에 대한 보증 확대를 반대하고 있고, 전체적인 예금 규모에 비해 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 시행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여기에 엘런 장관은 현재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다르며 은행 시스템은 당시에 비해 (규제 강화로) 강력하다고 언급. 더불어 현재 점차 안정을 찾고 있고 추가적인 은행 파산 위험은 줄었다고 주장. 이러한 엘런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미 증시 특히 금융주가 안정을 찾으며 지수 상승을 견인.

이렇듯 미 증시는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일부 개별 종목의 강세도 지수 상승을 견인. 먼저 테슬라(+7.82%)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신중한 재무 정책과 경영진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정크등급에서 Baa3 등급 즉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자 급등. 이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테슬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무디스는 올해 전년 대비 34% 증가한 약 180만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전망.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1분기 중국 판매가 10만 7천대를 기록, 하루 평균 1,300대 이상의 강력한 분기 판매를 달성했다는 소식도 우호적인 영향.

한편, 알파벳(+3.66%)은 MS(+0.57%)의 ChatGPT에 대한 대응으로 Bard 베타버전 테스트를 시작해 본격적인 AI ChatBot 경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CEO인 Pichai는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창의성과 호기심을 불러오게 만들어 기쁘다고 언급. 현재는 미국과 영국 사용자가 bard.google.com에 가입해 테스트를 진행하 있으며 추후 더 많은 국가와 언어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이에 대한 기대 심리로 알파벳이 상승.



금융주, 전기차, 2차전지 업종 강세

테슬라(+7.82%)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정크등급에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1분기 중국 소매판매가 10만대를 넘어서는 등 강력한 판매가 진행되었다는 소식에 상승. 포드(+4.83%)는 유럽 시장을 위한 2023년 익스플로러를 공개했는데 F-150 픽업 트럭 이후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리비안(+4.53%), 루시드(+6.36%), 그리고 니오(+5.94%), 샤오핑(+8.31%) 등 중국 전기차, 쿼텀스케이프(+3.84%), 알버말(+4.56%) 등 2차전지 업종도 상승. GM(+4.40%)은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상승.

알파벳(+3.66%)은 AI 챗봇인 Bard 베타 테스트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상승. 아마존(+2.97%)은 엔비디아(+1.15%)와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인공 지능(AI) 인프라 구축 등 많은 분야에서 협업을 발표하자 상승. 한편, 엔비디아는 GTC에서 산업 메타버스, AI 등과 관련 여러 기업들과의 협업을 발표하자 상승. 메타플랫폼(+2.20%)은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강세. 인텔(-2.40%)은 그래픽 칩 사업부 총괄이 사직하자 하락.

퍼스트 리퍼블릭(+29.47%)은 열린 재무장관의 필요할 경우 모든 예금에 대한 보증이 준비되어 있다며 은행 시스템의 견고함, 지역 은행들의 인출이 정상화 등을 주장하자 급등. 웨스턴 얼라이언스(+14.96%), 팩웨스트뱅크(+18.77%) 등 지역은행들은 물론, JP모건(+2.68%), BOA(+3.03%), 웰스파고(+2.67%) 등 대형 은행들도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3.48	대형 가치주 ETF (IVE)	+1.22
클린테크 ETF (CTEC)	+4.17	중형 가치주 ETF (IWS)	+1.48
소매업체 ETF (XLY)	+2.76	소형 가치주 ETF (IWN)	+2.06
온라인소매 ETF (EBIZ)	+2.61	대형 성장주 ETF (VUG)	+1.61
미국 인프라 ETF (PAVE)	+1.88	중형 성장주 ETF (IWP)	+1.86
핀테크 ETF (FINX)	+3.50	소형 성장주 ETF (IWO)	+1.75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91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89
클라우드 ETF (CLOU)	+2.24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26
사이버보안 ETF (BUG)	+1.94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45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28	미국 국채 ETF (IEF)	-0.87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52	하이일드 ETF (JNK)	+1.14
바이오섹터 ETF (IBB)	+0.12	신흥국 채권 ETF (EMBD)	+0.33
로봇&AI ETF (BOTZ)	+1.91	물가연동채 ETF (TIP)	-0.21
반도체 ETF (SMH)	+0.3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4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에너지	617.60	+3.45	-0.69	-3.84
경기소비재	1,131.84	+2.71	+3.53	+0.13
금융	531.95	+2.47	-0.67	-10.16
커뮤니케이션	187.93	+2.45	+6.88	+6.69
소재	489.45	+1.23	-0.51	-2.83
산업재	835.38	+1.13	-0.45	-1.81
IT	2,527.62	+0.83	+3.82	+6.21
헬스케어	1,490.34	+0.59	+1.38	-1.68
필수소비재	759.84	-0.12	+1.22	-0.93
부동산	227.29	-0.66	-1.93	-6.87
유틸리티	333.62	-2.05	-0.25	-1.9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FOMC에 대한 기대 심리 속 강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54%, MSCI 신흥 지수 ETF는 0.9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01.2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7%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CS발 리스크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출발. 그렇지만, 장중에 원화 강세가 축소된 가운데 외국인의 매물이 반도체 업종 등을 중심으로 출회되자 상승이 제한. 다만, 중국 증시 특히 홍콩 증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자 상승세는 유지. 더불어 미국 언론에서 전해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 예금 전체를 보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우호적. 이에 힘입어 KOSPI는 0.38%, KOSDAQ은 0.04%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열린 재무장관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과 대량 인출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언급 등으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더불어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은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준다는 점도 긍정적. 이는 최근 하락 요인들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한편, FOMC를 앞두고 CME FedWatch에서 3월 25bp 인상 확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반영하는 가운데 성명서 내용과 파월 연준의장 발언에 주목하며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특히 연준은 이번 3월 회의에서 금융 안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최고 금리 하향 조정)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감안하면 최고 금리를 유지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고 5월 회의에서 동결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음.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FOMC에 대한 기대 속 원화 강세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기존 주택 판매 급증

미국 2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지난달 발표된 연율 400만 건이나 예상치인 417만 건을 크게 상회한 458만 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14.5% 증가한 반면, 전년 대비로는 22.6% 감소. 한편, 판매 중간 가격은 3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0.2% 하락.



국채 금리, FOMC 앞두고 금리인상 기조로 급등

국제유가는 글로벌 은행 리스크 완화 기대 속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자 수요 증가 기대로 상승. 한편,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은행 리스크에 기인했다는 OPEC 관련자의 발언 등을 감안 은행 리스크 완화는 결국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국제 유가 상승 요인. 한편, 미국 천연가스 가격과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작용으로 상승.

달러화는 주택 지표 개선과 FOMC에서 25bp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혼조세. 파운드화는 영란은행이 BOE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약세.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자 달러 대비 약세. 유로화는 ECB 금리인상이 지속된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강세. 여타 신흥국 환율은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

국채금리는 은행 리스크가 완화된 데 힘입어 급등한 가운데 FOMC에서 25bp 금리인상 확률이 80%를 넘어서자 상승세는 지속. 특히 옐런 재무장관이 지역 은행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자 이에 힘입어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완화된 점도 금리 급등 요인 중 하나. 한편,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59배를 하회한 2.53배,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인 71.7%를 하회한 67.0%를 기록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와 그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 곡물은 FOMC를 앞두고 은행 리스크 완화에도 불구하고 중-러 정상회담 속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화 촉구 등으로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1%, 철근은 0.14% 하락.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9.67	+2.52	-2.74	Dollar Index	103.243	-0.04	-0.34
브렌트유	75.32	+1.91	-2.91	EUR/USD	1.0768	+0.44	+0.33
천연가스	2.35	+3.73	-10.38	USD/JPY	132.54	+0.93	-1.25
금	1,958.30	-1.93	+1.75	GBP/USD	1.2216	-0.51	+0.48
은	22.43	-0.60	+2.13	USD/CHF	0.9225	-0.71	+0.91
알루미늄	2,266.50	-0.35	-3.66	AUD/USD	0.6670	-0.71	-0.18
전기동	8,757.50	+0.69	-0.86	USD/CAD	1.3714	+0.37	+0.20
아연	2,864.50	-0.73	-1.55	USD/RUB	77.2276	+0.64	+1.98
옥수수	630.00	-0.55	+1.41	USD/BRL	5.2432	+0.10	-0.21
밀	683.25	-2.89	-2.26	USD/CNH	6.8776	+0.06	-0.03
대두	1,467.00	-1.30	-1.81	USD/KRW	1,311.20	+0.08	+0.01
커피	180.30	+1.01	+2.76	USD/KRW NDF1M	1,301.20	-0.10	-0.07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606	+12.09	-8.36	스페인	3.332	+13.50	-15.20
한국	3.305	+1.50	-7.00	포르투갈	3.132	+12.10	-18.30
일본	0.250	0.00	-2.40	그리스	4.202	+9.50	-13.10
독일	2.292	+16.70	-12.80	이탈리아	4.116	+12.80	-14.9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